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오 세 철

(회원, 연세대 교수)

1. 총체적 모순의 본질

물리적으로 10년씩 나누는 데에는 문제가 많지만, 자본과 노동의 대립 투쟁이 1970년대와 '80년대가 상당히 다르다. '70년대는 노동자 계급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고, 이것은 전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연결된 것이었다. '80년대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의 노동통제전략이 바뀌어 나가는 시기였는데, 자본의 전략이 유연화전략이라는 것으로 선회한다. '90년대에 들어서서 유연화전략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활발해진다. '70년대의 재현까지는 아니지만 당시 고양됐던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80년대의 침체를 넘어 새로운 자본전략과 대립 투쟁하다 나아가는 형국으로 '90년대가 특징지어진다. 새로운 계급투쟁의 역사가 자본의 전략에 새롭게 대응해 나가는 노동자계급의 힘으로서 나타난다. 이런 조짐으로 21세기에는 신자유주의 자본전략의 세계적 관철에 대립 투쟁하는 노동계급의 세계적 단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조금은 선부른 전망을 해본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한국자본주의를 봤을 때, 한국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 특성에 대해서 진보적인 학계에서 오래 전부터 '독점강화 종속심화'라는 테제로 이야기를 해왔었다. 이것에 대한 반론과 비판 등이 진행되기도 했었는데, 독점강화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제기가 없었지만, 종속심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론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그것은 종속의 유형이 달라지는, 예를 들어 경제적 종속이 생산과정에서 기술적 종속으로 달라지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 세계자본주의의 한국자본주의 종속의 문제는 역시 다른 형태로 관철된다. '독점강화 종속심화'라는 한국자본주의의 구체적 모순은 역시 본질적으로 관철된다. 이런 한국자본주의의 모순과 세계자본주의의 노동통제전략이 만나는 것은 '80년대의 유연화전략을 흥

내내면서 따라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유연화전략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포드주의적 자본축적체계가 관찰되고 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포드주의가 포스트포디즘으로 질적 전환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한국자본주의가 노동에 대한 탄압과 억압, 배제라는 종전의 자본의 축적 전략을 밀바닥으로는 관찰시키면서 표면적으로는 유럽의 자본의 전략을 흉내내는 것은 전술적으로 노동에 대해 자본의 대응하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상당히 중첩적인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계급모순은 본질적으로는 억압적 자본가계급에 대립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이고, 겉으로는 자본과 노동의 협조주의가 나타나는 형태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동운동이 상당히 쇠퇴한 것으로 보이나 밀바닥으로는 그대로 계급투쟁의 본질이 관찰된다.

그러면서 세계자본주의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전략이 표면적인 평화전략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나간다고 보이며, 그런 구도 속에서 북한에 연착륙하는 정책이 미국으로서는 확립이 됐고, 그 구도 속에서 새로운 국제관계가 성립된다.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즉 세계자본주의의 동북아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전략이 기본 전략이라고 보고 그런 전략하에서는 점진적인 흡수통일이라는 기본 전략이 세워 있다. 한반도의 무력분쟁이나 전쟁 등을 바라지 않는 전략으로 그런 동북아전략과 세계자본주의 노동통제전략은 서로 맞물려 있다.

2. 한국적 모순의 표출

이와 같은 총체적인 정세 속에서 한국사회의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최근에 어떻게 표출되는가 하면, 계급모순의 표출은 최근의 노동법개악, 한보비리, 지배계급에 의한 노동자 민중운동의 탄압 등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한보비리는 단순한 정경유착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계급모순을 극명하게 말해주는 사건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민족모순의 표출은 안기부법 개악, 황장엽 공작, 이것을 통한 반공이데올로기의 발호 등으로 이것 역시 계속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한 민중운동이나 진보운동의 탄압이 지속될 것이다.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 분리되지 않고 총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법의 개악이라는 것도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맞물려 가고 있고, 이것을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모순

의 표출의 영향을 받아 지배계급내의 권력투쟁도 심화되고 있다. 보수권력내의 권력투쟁을 보면 더 이상 독점이 불가능한 권력구조의 모순이 드러났다고 보고, 결국엔 분점의 형태(내각제)로 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

3. 민족민주운동의 상태와 대응

이런 정세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민족민주운동, 혹은 민중민주운동의 상태는 어떠한가, 지배계급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판단을 해보면,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 구심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이번 노동법개정 투쟁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총파업투쟁의 ‘공’과 ‘과’가 있다고 보는데, 공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 그러나 공만큼의 과도 많다. 그것은 계급투쟁의 정치지도력으로까지는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노동운동 내에서의 지도력으로서는 부상했지만, 변혁운동과 계급운동 전체로서의 정치지도력으로서는 성장하지 못했다. 이것은 우선 민주노총과 범대위의 관계, 또 범대위 내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치적 구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범대위는 민주노총, 전국연합, 민중운동탄압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민운탄범대회의), 시민운동단체 등 크게 네 가지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네 세력들의 노선과 역학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날치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일시적 분노로 영합한 시민운동단체는 이미 범대위에서 오래 전에 빠져나갔고, 전국연합은 유명무실한 기구로 되어 있고, 민주노총은 범대위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범대위를 주종적 관계로 간주하고 있다. 그나마 투쟁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세력이 있다면 민운탄범대회의 소속 단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범대위의 내부적 문제이다.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되다 보니 총파업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는 전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났는데, 하나는 김영삼 정권에 대한 태도에서 혼란이 있었고--김영삼 정권의 타도와 퇴진이란 기조가 김수환 추기경의 청와대 방문이 잦아지면서 무너졌다. 현 정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버렸다--, 또 하나는 보수야당을 끌어들이자는 입장이 있었다. 이 두 가지 입장이 보수권력에 대한 노선의 혼란을 가져왔으며, 투쟁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다. 현재는 각 세력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범대위를 제대로 유지할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4. 민민운동의 진로

총과업투쟁을 중심으로 각 민민운동의 상황은 앞으로 이런 투쟁을 경험하면서 정치적 구심을 어떻게 세워내느냐가 시급한 문제이다. 변혁운동세력으로서 좋은 기회인 이 기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 크게 다섯 가지로 이야기해 보면, 첫째로 투쟁노선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 총체적 모순에 대한 투쟁기조는 대중투쟁을 통한 반자본과 반보수권력 투쟁을 제대로 해야 한다. 줄기찬 대중투쟁 기반을 두지 않고서는 민민운동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본다. 지속적인 대중투쟁이 강조된다. 대중투쟁을 통한 반자본과 반보수권력이라는 양 측면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두 번째, 이런 노선을 바탕으로 투쟁조직을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 이것은 범대위를 새롭게 재편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건설이 필요하다. 새로운 건설을 주장하면서 변혁적, 투쟁적 민민운동세력의 총결집을 통한 새로운 투쟁조직의 건설이 필요하다. 민운탄범대회와는 이러한 기조에 모두 동의했다. 여기에는 학생, 빈민 등 같이 할 조직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노동이 문제다. 민조노총은 같이 하기가 힘들지만 지방의 노조조직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해투(전국해고노동자투쟁조직) 등의 노동부문과 유가협, 민가협 등이 같이 하는 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민중연대투쟁본부의 건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운동본부를 반대하는데, 국민연대본부의 형태로는 자본과 정권에 투쟁할 힘이 약하다. 늦어도 4월까지 민중연대투쟁본부를 건설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싸우면서 내각제 개헌, 대선 등 각 사안마다 그 투쟁본부 내에서 싸워야 한다. 만일 가능하다면 투쟁의 성과로 정치운동조직을 그 안에서 형성해 내야 한다. 민중당이 왜 실패했는가? 첫째, 대중투쟁에 기반을 두지 않았고, 둘째, 학생운동을 했던 몇몇 엘리트 중심의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세력화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며, 투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도 합법적인 정치부대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전선체로서의 투쟁본부와 정치조직으로서의 합법당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반자본, 반보수 권력투쟁을 해야만 한다. 10년 만에 이런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통해 그동안 분화되었던 민민운동의 세력을 다시 대동단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올 상반기가 앞으로 10년간의 민민운동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사월혁명회보 제48호(1997.4)
(제51회 월례발표회 발제문)